


# 基督教思想

1959



特輯 · 韓國教會와 宣敎政策  
— 座談會 · 戰後의 韓國宣敎政策의 方向 —

7



Digitized by the Internet Archive  
in 2016

權紀四二九〇年三月二三日 許可第一九二號  
 權紀四二九〇年八月一日 創刊  
 第三種 郵便物 認可番號 第二〇七四號

過 卷 第 二 十 三 號  
 二 〇 〇 號

# CHRISTIAN THOUGHT

(SPECIAL ISSUE: MISSION WORK AND LOCAL CHURCH IN KOREA)

## — CONTENTS —

July 1959

### EDITORIALS:

Mr. John Foster Dulles, a Case of a Christian's Dedication to His Country.....	7
A New Perspective of Missionary Work in Korea Today.....	9

### ARTICLES:

Retrospect and Future of Mission Work in Korea by <i>Kim, Yang Sun</i> ...	10
A Review on Mission Enterprise Policy in Korea by <i>Song, Chung Yul</i> ...	18
The Christian Mission At This Hour by <i>Dr. John A. Mackay</i> .....	65
Le Romancier et ses personnages by <i>F. Mauriac</i> .....	26
Tragedy of Kafka by <i>Hyun, Young Hak</i> .....	56
Paul's Understanding of the Law by <i>Chang, Byung Il</i> .....	80
(C. L. S. Prize Award Essay)	

### PANEL DISCUSSION

New Aspects of Mission Enterprise in Post-War Period in Korea..... 40

Participants:	Rev. Peter Van Lierop	United Presbyterian Mission
	Mrs. K. J. Foreman Jr.	United Presbyterian Mission
	Rev. Homer Rickabaugh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Mr. Jack Theis	Methodist Mission
	Miss Peggy Billings	Methodist Mission
	Rev. Kim, Ha Tae	Dean of the Theological Department, Yonsei University
	Rev. Harold Hong	President of Methodist Seminary
	Rev. Lee, Whan Shin	Professor of Methodist Seminary
	Rev. Chough, Sun Chul	Dean of Hankuk Seminary

### PULPIT:

Exploration of Christian Life by <i>Ahn, Eun Yak</i> .....	36
--	----

### STRAY THOUGHT AND NOTES:

Profiles of Retired Missionaries in Canada by <i>Kim, Chai Choon</i> .....	70
Life That Is Romanticized by <i>Hurolid Hong</i> .....	73
Notes on Pascal by <i>Lee, Im Soo</i> .....	74
Meditation on the Fragrance of Jesus by <i>Chun, Kyung Yun</i> .....	78

### BOOK REVIEW:

Krankheit zum Tode by <i>S. Kierkegaard</i> .....	88
---	----

### BIBLE STUDIES:

Jeremiah and Reformation in Deuteronomy by <i>Moon, Ick Whan</i> .....	91
Christology in the Epistle to the Hebrews by <i>Kim, Chul Son</i> .....	97

NEWS OF THE CHRISTIAN WORLD: .....	104
------------------------------------	-----

의 文化都市에 나타났던 사도바울과 같이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전하지 않으려는 단순한 신앙의 소유자가 아  
 니었고, 十六세기의 中國의 카톨릭 선교사들과 같이  
 天文曆算 등의 과학의 啓蒙으로써 그리스도교를 이해  
 시키려는 知識偏重의 人爲의인 方法에 依存하는 傳道  
 者였다면 한국 푸르테스탄트 교회는 결코 오늘의 隆盛  
 을 달성하지 못하였겠기 때문이다.

이처럼 韓國푸르테스탄트 선교의 기본정신은 그리스  
 도의 십자가와 寶血에 直結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천년  
 이래 韓民族의 마음 속에 뿌리박혀 있던 샤만  
 이즘의 無知와 儒敎의 形式主義와 佛敎의 迷妄을 깨트  
 려 버리고, 이 땅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매우 용이하  
 게, 또한 튼튼하게 건설할 수 있게 되었다.

## 二、한국선교의 기본방침

선교사업에 있어 그 기본방침은 宣敎精神과 아울러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초대 선교사들은 그들  
 의 선교사업을 착수함과 동시에 그것의 기본방침을 정  
 하는데 크게 유의하였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말에  
 짚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임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  
 한바 있거니와 전도자는 반드시 복음의 종자를 뿌릴  
 사람의 마음밭의 성질과 그 민족의 역사, 문화, 風習  
 등을 잘 알아서 선교의 適宜한 방법을 가지는 것이 필

요하다. 한국 초대 선교사들은 그 방법을 정하기 위하  
 여 먼저 우리나라에 隣接하여 있는 中國 선교사들의  
 선교방법을 알아 보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중국은 古  
 來로 種族, 역사, 문화, 정치, 풍습에 있어 한국의 그  
 것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중국에서  
 성공된 방법이라면 한국에서도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때문이었다. 그때 마침 中國 山東  
 에 매우 풍부한 宣敎經驗을 가진 네비어쓰 (John L.  
 Nevins)라는 선교사가 있어, 자기의 宣敎經驗에 依한  
 선교사업의 기본방법을 발표함과 있었다. 그것을 소위  
 「네비어스 방법」이라고 한다. 一八八五年 그의 論文이  
 「中國報」(Chinese Recorder)란 中國宣敎雜誌에 발표  
 되자, 매우 好評되어 그 翌年에 上海에서 단행본으로  
 再刊되었고, 그 후에 美國外地宣敎本部에서 다시 출판  
 하여 世界에 널리 宣傳하였다. 한국 푸르테스탄트 선  
 교사들은 네비어스 방법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중국에 있는 다른 모든 고참 선교사들의  
 지도와 의견까지도 듣고자 하였다. 저들의 소원은 일우  
 어져서 一八九〇년 六月에 네비어스 박사 夫妻가 中國  
 山東 芝罘로부터 서울에 건너왔다. 서울에서 약 二주  
 일 동안 언더우드 박사를 비롯한 七人の 한국선교사들  
 과 함께 宣敎方法論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계속 하였  
 다. 언더우드 박사의 말에 의하면, 선교사들은 신중환

# 韓國宣敎의回顧와展望



金 良 善

## 一、韓國 선교의 기본정신

지금으로부터 八十년전 한국 최초의 푸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이 隱士國 한국에 新教野를 개척하기 위하여 고국을 뒤에 두고 배에 오르던 때의 감회와 결심은 그들의 祖先인 淸教徒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五月花船을 타던 때의 그것과 방불하였을 것은 짐작하여 알 수 있는 일이다. 한국 선교의 大立物인 馬布三悅 S. A. Moffett 박사는 禧年 기념 예배 석상에서「내가 한국에 들어와 선교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한바가 있었읍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道 이의 다른 것은 절대로 전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읍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죽든지 살든지 구원의 복음만을 전하기로 굳게 결심하였읍니다. .... 나로使徒 바울의 결심하였던 바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외에는 다른 것은 전하지 않기로 결심 하였으며 만일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고 스스로 맹약하였읍니다」라고 말하여 한국 푸로테스탄트 宣敎의 基本精神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십자가의 도만을 전파함으로써 韓民族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던 것이 외에 다른 아무 것도 없었던 純粹簡明하기 짝없는 저들의 류리탄의 기계와 신앙은 지금에 와서 높이 평가되어야 하고 또한 널리 宣揚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만일 韓國初代宣敎師들이 헬라

높일 것.

(8) 한국교인 자신들로 하여금 저들의 친구와 이웃을 교회로 인도하게 함으로써 큰 교회를 만들게 할 것. 그럼으로 선교사는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자를 기르는 데 힘을 쓸 것.

(9) 醫藥事業을 통한 전도에 주력하되, 入院治療 혹은 장기간에 걸친 家庭訪問治療가 전도의 好機會가 됨을 명심 할 것.

네비어스 방법의 研究者 郭安連(C. A. Clark) 박사는 네비어스 방법 내지 한국선교의 성공의 비결을 지적하여 네비어스 방법의 기본 정신은 자급원리이다…… 그럼으로 전도사업이든지, 교육사업이든지 의로사업이든지, 사업을 막론하고 모두 自給의 原理 밑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아니된다…… 그러나 성경공부 체제 밑에 행하지 않으면 자급의 원리가 성공을 보기에 어렵다」라고 말하였다. 自給과 聖經工夫와를 한국선교의 二大原理로 지적한 것은 前記 馬布三悅박사의 견해와 동일하나 성경공부를 자급의 원리 위에 놓은 것은 郭牧師의 卓見이라 아니할 수 없다. 선교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 말씀의 근본으로 하지 않아서는 아니 된다. 필경 한국의 선교사업은 하나님의 말씀을 터로 하여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자급의 원리 밑에 온갖 것을 행하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정확한 목표와 올바른

방법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과를 초래하였다. 이것은 실로 韓民族의 하나님에게서 받은 최대의 축복인 동시에 한국선교사들의 世界宣敎史上에 끼친 最大 最貴의 공적이라 할 것이다.

### 三、한국선교의 과정과 그 성과

한국선교에는 新舊敎를 막론하고 世界宣敎史上 類例를 볼 수 없는 二대 특징이 있다. 그 하나는 선교사의 自給원리이다. 그 하나는 선교사들이 自給원리에서 나온 자진 그리스도교에 改宗하는 동시에 자진 선교사를 초청하여 들어오게 한 것이다. 一七八四년 李承薰이 多至使節에 隨行하여 北京 天主堂에 들어가 세례를 받고 歸國하여 韓國 天主敎創立의 大立物인 李蔭木과 더불어 天主敎會를 창설하고 선교사의 파견을 北京 天主堂에 간청하여 마침내 그 뜻을 이루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新敎에 있어서도 一八七三년경 李應贊, 白鴻俊, 徐相崙 等의 義州 靑年들은 滿州 牛莊으로 들어가 영국 스코트랜드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新約全書를 譯刊歸來하여 義州와 松川에 한국 최초의 푸로테스탄트 교회를 설립하였고, 一八八一년경 李樹庭과 같이 韓國 政府의 高官은 일본 東京으로 건너가 그리스도교에 改宗한 후 역시 한글聖書を 譯刊하는 동시에 미국 長老 敎宣敎本部에 선교사의 파견을 간청하여 마침내 韓國

검토와 간절한 기도 후에 네비어스 방법중에서 韓國 實情에 맞는 몇몇 重要個條를 韓國宣敎의 기본방침으로 정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다.

이제 한국선교의 기본방침으로 채택된 네비어스 방법의 主要骨子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개인전도——선교사는 지방으로 널리 순회하면 서 개인전도에 힘쓸 것.

(2) 自力傳道——신자마다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자 각하여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

(3) 自立的 自治——교회마다 저들 가운데서 지도자를 선정하여 교회생활을 自營 自治하게 할 것.

(4) 自給의 生活——신자는 각자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며 교회생활에 있어서는 교회당의 진축 전도사의 봉급 등에 대한 應분의 책임을 지도록 할 것.

(5) 조직적 성경공부——모든 교인들로 하여금 주일마다 성경을 계단적으로 공부하게 할 것.

(6) 聯合精神의 양성——다른 단체와의 연합사업 또한 다른 地域과의 연합사업을 통하여 연합의 정신을 기를 것.

馬布三悅박사는 한국선교에 있어서 네비어스 방법의 採擇의 결과를 평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네비

어스로부터 우리 선교사업의 兩大原理를 받았다고 볼 수 있으니 그것은 곧 聖經工夫班의 조직과 자급의 原理인 것이다」(Quarto Centennial Report,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 S. A. P. 18) 一八九三年 삼월 韓國宣敎聯合公論會가 비로소 조직되면서 數年來 사용하여오던 네비어스방법의 기초위에 저들의 경험에서 얻은 새로운 방법들을 가미하여 만든 푸르테 스타트 선교사업의 新基本方針을 선포한바 있었다. 이제 그것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전도사업은 양반 계급보다 노동 계급을 목표로 할 것.

(2) 婦女層의 改宗과 믿는 부녀들의 훈련에 특별한 관심을 가질 것. 그것은 어머니의 신앙은 제二世 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임.

(3) 地方 小邑의 초등학교의 유지 경영은 그리스도 교육에 크게 유익하니, 중학생 중에서 우수한 인물을 선택하여 초등학교의 선생으로 보낼 것.

(4) 될 수 있는 대로 신속한 시일안에 정확히 번역된 성경을 일반 신자들에게 공급할 것.

(5) 교육받은 지방 전도사들의 교육을 계속적으로 할 것.

(6) 모든 문서사업은 한글로 할 것.

(7) 補助의 금액은 점점 감소하고 자급의 정도는 점점

(6) 의로 전도.

(7) 그리스도교 文書 刊行事業.

(8) 청소년 운동.

(9) 사회사업.

한국 선교사업은 또한 한국교회의 성장발전에 따른 適宜한 선교행정을 수행함으로써 오늘 한국교회로 하여금 世界教會에 列할 수 있는 하나의 독립교회를 만들었다. 그것을 年代別로 따져보면 다음과 같다.

(1) 선교사 主管時代 一八八四—一九一一.

(2) 선교사와 한국교회와의 共同事業時代 一九一二—一九四五.

(3) 선교사의 한국교회에의 협조시대 一九四五—一九五九.

(4) 선교사의 한국 교역자로서의 사역시대 一九六〇—

한국선교의 성과가 세계교회의 驚異의 的이 되어 있는 것은 周知의 사실이다. 먼저 교회발전의 數字的 統計는 그 成長力의 旺盛함을 여실히 증명한다 (통계표는 생략함). 一九二六년의 新敎의 통계는 교회수 三、六六四, 신도수 二九九, 五六四를 示現하고 있어, 선교四十년에 人口 二천만 미만의 좁은 땅에서 놀랄만한 수효의 신자가 일어났다. 그러나 더욱 놀랄만한 것은 그

때로부터 다시 三十년을 지난 一九五六년의 통계를 보면 (三八선 이북의 교회들 제외한 南韓만의 교회통계) 교회 五, 三〇一, 신도 一, 三二四, 二五八을 示現하고 있어, 三十년 어간에 南韓만에서도 신도수가 六倍나 증가 되었다. 카톨릭은 불과 二倍半의 증가를 보았을 뿐이니 그것은 카톨릭의 선교의 정진과 방법이 선교의 그것에 따르지 못하였음을 明示한다. 그것은 선교를 받은 사람은 동일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모이기 잘하는 교회, 기도 잘하는 교회, 성경 잘 아는 교회, 연보 잘하는 교회, 전도 잘하는 교회, 禮拜堂 잘 짓는 교회」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실정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 결코 과장하는 말은 아니다. 이것들은 모두 한국교회의 자랑스러운 특색인 동시에 선배 선교사 諸賢의 光榮의 공적인 것이다.

韓國 長老教會의 泰國宣敎事業은 불과 四、五년간에 泰國 宣敎수백년래의 최대의 성적을 示現하고 있거나 와 그것은 오로지 우리 선교사들이 한국의 선배 선교사들의 선교정신과 방법을 그대로 계승한 때문이다. 한말로 하면 한국 선교는 대성공을 보았다.

#### 四、새 시대와 새 선교

한국은 독립국이 되었고 세계 자유주의 국가들과 더



알렌, 언더우드 등의 한국의 최초 푸르테스탄트 선교사를 맞는데 성공하였다. 그 다른 하나는 선교 개시 이후 短時日에 世界宣敎地中 가장 큰 성적을 들어낸 것이다. 前者는 복음을 받는 畵의 特異한 준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고 後者는 복음을 주는 畵의 特殊한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의 선교는 우리편의 驚異的인 준비와 선교사편의 適宜한 방법으로 말미암아 큰 성공을 보게 된 것이다. 선교의 기본방침에 대하여는 이미 상론한 바 있거니와 우리편의 준비에 대하여는 三大 준비가 있었다고 본다. 첫째는 한국인의 민족성이요, 둘째는 政治的 環境이요, 셋째는 우리의 「한글」이다.

한국인은 고대로 종교성이 풍부한 민족이다, 그러므로 인제나 외래의 종교를 잘 받아들였다. 儒敎, 佛敎 道敎와 같은 외래종교가 우리 민족 사이에서 크게 성행된 것은 周知의 사실이나,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신」 그리스도교가 儒敎의 형식과 불교의 迷妄과 道敎의 自棄에 지친 우리 나라 사람에게 크게 환영될 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이다. 더구나 그리스도교가 우리 나라에 처음 들어오던 때는 國家 存亡의 위험이 현저하게 커가고 있던 때이었고, 또한 專制君主와 그의 밑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몇몇 奸臣輩의 專橫이 極甚하던 때이었음으로 일반 대중을 그야말로 버림 받

은 존재들로서 指向할 바를 전연 알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구원의 손길이 든지 와서 달기만 하면 곧 그것을 받아 드릴 態勢에 놓여 있었다. 이것은 바로 政治的 環境의 그 첫째 되는 것이다. 그 후 日本人이 政治的 乃至 領土的 侵略은 우리 나라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 다른 政治的 環境을 形成하였다.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자연이 구원을 하나님에게 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만일 우리나라가 世界文字中에서 가장 優秀하고도 위운 한글을 가지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교가 그렇게 短時日에 그렇게 크게 發展되었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긍정하는바 사실이다. 韓國宣敎는 그 당초부터 事半功倍의 好運속에 놓여 있었다. 우리나라 선교사나 함께 이 사실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韓國宣敎는 한국인이라는 特異하게 준비된 터위에 또한 가장 특수한 선교정신과 방법 아래 다음 九階段의 사업을 완수함으로써 오늘날의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 (1) 신도의 획득과 교회의 설립.
- (2) 계속적인 성경공부와 祈禱生活.
- (3) 교회지도자의 양성.
- (4) 婦女子 중심의 전도 사업.
- (5) 基督少年을 위한 학교 교육.

교육시설의 부족한 대학이고, 그 다른 하나는 시설은 충분하나 그리스도교 교육이 부족한 대학이다. 前者는 경제적으로 後者에는 人的으로 그 缺을 補하여 名實 共한 基督敎大學을 만들어 公산주의 退治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줄 안다.

(2) 聯合事業, 지금까지의 연합사업은 주로 선교단체 互相間에 되어진 것이고 한국교회라든지, 한국교인 宣敎政策下에 육성되어 왔기 때문에 個體敎會는 크게 旺盛하면서도 연합사업에 있어서는 他國敎會에 비하여 너무나 미미한 현상이다. 이것은 출직하게 말하여 선교사들의 功罪인 동시에 한국교회의 손실인 것이다. 금후 이 방면의 사업을 크게 장려하며 시행해야 할 것이다.

(3) 학생 및 청년운동, 한국의 학생들과 청년들은 지금 극도의 회의 가운데 빠져 있다. 그들은 사상적으로 거의 공허 상태에 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 그리스도교 思想, 또는 신앙을 넣어줄 絶好의 기회가 왔다. 학생 센터 같은 시설과 그들의 참 친구가 될 수 있는 精神的 指導者가 필요하다.

(4) 농촌사업, 한국은 농업국이요, 농민이 全人口의 八할을 占하고 있다. 그들을 잃으면 한국은 망한다. 농촌을 구하지 않고는 한국을 바로 잡을 수 없다. 지

금 농민은 육적으로 청신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농촌사업은 금후 시급히 요구되며, 그것은 또한 막대한 경제적 후원과 인적 후원을 필요로 한다.

(5) 醫療 및 보건사업, 이 운동은 自來로 宣敎政策의 가장 중요한 項目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그 사실, 그 운영방법에 있어 좀 더 큰 손을 기다리고 있으며 일반적인 보건사업은 그리스도교의 博愛精神과 사랑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뜻은 그대로 구현하는 사업임으로 금후 크게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6) 神學의 樹立, 한국교회의 신앙은 신학 없는 신앙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나, 하여간 天堂을 소원하는 저들의 마음은 신학적인 것보다도 利慾的인 것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실의 好條件, 혹은 현실의 강한 위협은 쉽게 저들의 신앙의 正조를 빼앗는다.

한국교회는 聖書神學의 확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신학교육은 신학교에서 하는 것이 좋으나, 체계 있는 확고한 신앙을 가지게 하는 일은 교회에서 할 일이다. 한국교회에는 신학교의 내용 충실과, 신자의 마음 속에 聖書的인 神學을 수립하는 일과가 重大 課題로 남아 있다. 선교사들은 금후 이 방면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基督敎 博物館長)

불어 손을 잡고 공산주의라는 인류의 가장 큰 共敵과 더불어 싸워야 하는 재 지대가 왔다. 일찍 한국 청년의 참된 지도자 李商在 선생이 젊은 선교사들로부터 「만일 선생께서 선교사라면 지금 무엇을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나는 먼저 내가 미국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겠다」라고 대답하였다. 지금은 분명 그리스도의 군일들은 세계 어디서든지 공산주의 만행과 暴惡에서 인류를 구원해 내야 할 공동 과업에 당면하여 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을 공산주의의 싸우는 제일선 전투지구이다. 聯合軍이 우리 땅에서 공산군을 막아내드시 선교사나 한국 교역자나 다 같이 공산주의라는 惡思想을 막아내야 할 공동 책임하에 놓여 있었다. 만일 우리 나라가 공산군의 침략을 받아 점령 다면 세계 다른 모든 지역의 공산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교는 파멸되고 말 것이다. 그때에는 八十년 선교의 노고의 흔적조차 남지 않을 것이다. 비록 우리나라가 今後 共産主義者의 侵略을 받지 않는다는지 또한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의 정신적 침략에 승리하지 못한다면 도리어 우리는 싸움없이 공산주의 앞에 굴복하는 수치를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선교의 근본 방침은 인류의 共敵인 공산주의를 막아내며, 그것을 없애버리는 데 목표를 둔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지 아니하면 아

니 될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또한 선교사들은 미국이나 호주인이나 캐나다인으로서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으로서 일하는 심정과 태도를 가지지 않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선교사들이 우리와 같은 심정과 임무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들은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와 장래 문제를 우리와 함께 근심하고 우리와 함께 계획하고 우리와 함께 해결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필자가 금후의 宣敎時代를 선교사의 한국 교역자로서의 事役時代로 지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것이 되어 지지 않는 한 선교사들은 끝까지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일터의 주변에서 내왕하다가 六・二五 사변과 같은 큰 위기가 올 때는 본국으로 돌아가고 말게 될 것이다. 공산주의란 악마는 언제든지 이러한 틈만을 엿보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가 한국 교회의 참된 지도자 또는 교역자로서 일할 마음만 있다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무릎을 맞대고 앉아서 김치 짬뽕을 먹어가면서 적재적소에서 우리 교회의 필요한 일들을 끝까지 해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가 요구하는 새 선교사업의 과목들을 말해 보려고 한다.

(1) 基督教大學의 완성. 현재 우리 나라의 基督教大學들을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철한 교육은 하고 있으나,

를 위하여, 또는 그리스도교 그 자체가 생명이 약동하는 권능으로 힘찬 활동을 하여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그 성격상 하고야말이 민족 국가를 위한 건설적이며 적극적인 공헌을 더욱 확대 강화시키기 위하여 더우기 오늘까지의 선교 사업이 갈수록 더욱 더 큰 結實을 계속케 하기 위하여서도 현하의 要求와 將來를爲한 전망에 처하여 우선 오늘의 선교사업을 정직 담대히 評價 검토하고 아울러 그 政策을 더듬어 살피기에 관한 提言을 해야 할 필요를 切感한다.

힐차게 밀려드는 역사의 조류에 밀려 儒敎의 인在上者를 위한 中庸과 服從의 도덕관, 및 姑息化한 李朝佛敎의 諦念 혹은 應報사상에 기초한 人生觀을 止揚치 않을 수 없는 歷史的 契機에, 하나님의 創造—贖罪의 사랑과 能動的인 義의 신앙에

근거하여 個人的 絶對的인 價値와 人間의 兄弟愛의인 聯關性을 人間의 內的인 경험으로 把握케 하는 그리스도의 福音이 그리스도교 선교사들을 통하여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이 민족이 걸어온 歷史的 行程을 아는 이들에게 있어 진실로 버찬 감격이 아닐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救贖과 新生의 권능인 복음의 宣敎가 한국사회 및 그 문화와 의 접촉에서 이 민족의 문화 一般生活意識 및 그 慣習에 새로운 性格과 形式을 주게 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바이었다. 한 사회와 한 문화 환경 안에서의 福音 宣敎가—특히 한국과 같은 정황 안에서 先驅의 文化運動의 형식으로 아니나 타날 수 없었으니 이는 福音 宣布가 現在 秩序 안에서의 文化的 交涉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宣敎 그것은 그 本質上 歷史性을 가진 것이요, 또

동시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 의미에서 文化的인 制約을 받기 때문인 것이다. 말씀이 肉身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獨生子의 영광이러라 한 사실은 宣敎 事業의 歷史性과 그 文化的 制約性을 含蓄하고 있는 것이다.

宣敎가 한국에 있어「宣敎事業」으로 번역되고 具體化되었다는 것은 가장 당연한 일이요, 또 그 과정과 오늘까지의 결과로 보아 한국과 우리 제례를 위해 지극히 큰 축복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 있어서의 선교사업이 進取的인 敎育 事業과 醫療 事業으로서 시작되었다는 일은 극히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敎育 醫療 기관들은 그 本然의 사명을 다하는 한편 基督教 福音傳道의 강력한 機關으로서의 큰 효과를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민족정신과 민족주의 정

# 한국에 있어서의

## 宣敎事業과 그 政策을 말한 다

宋 正 律



宣敎事業을 통한 그리스도교의  
봉헌을看過하고 우리는 결코 오늘  
의 한국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비록 인간과 교회가 가진 實  
存의 내지 사회적 제약 때문에 현  
대 한국의 發展 過程에 있어 그리  
스도교와 교회가 지지른 과오가 적  
지 않다 손 치더라도 그리스도교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화적 활동에  
있어 가장 先驅의인 공헌을 하여  
왔으며 모든 문화면에 있어 그 내

적인 성격과 방향을 형성 지향시켜  
왔음은 하나의 엄연한 歷史의 사실  
이다. 확실히 그리스도교는 그 하  
나님 신앙에 근거하여 全人類의 聯  
關에서 세계적 전망을 가진 民族自  
主의 부동의 신념을 배양시켜 왔으  
며 개성의 존엄과 人間目的의 확  
신이 솟아나는 創造神 攝理神에 대  
한 信仰으로 민주정신을 복돋우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스도교 선교 사업의 공헌과  
기여를 솔직히 또 欣然히 인정하면

서도 오늘 우리는 한국에 있어서의  
선교사업과 그 政策을 論議치 않을  
수 없는 현단계에 부딪치고 있다. 이  
는 오늘까지의 선교 사업과 그 정  
책의 樣相과 性格을 결정지은 前代  
의 社會的 文化的 일면 정황이 오  
늘의 한국의 그것과는 현격히 判  
異할 뿐 아니라 質的으로도 公約될  
수 없는 정도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를 그  
內容具顯의 不可缺한 要素로 하는  
福音의 계속적 이요 生命的인 宣布

정과 발전을 필요로 하는 점들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에 관하여 다  
음의 몇 가지들 지적할 수 있다고  
믿는다.

첫째로, 한국의 있어서의 그리스  
도교 선교 사업을 할지 「선교사들  
의 선교 사업」으로 실천하여 가는  
정향이 아직 도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믿는다.

아마도 一九三〇년 一二월에 한  
국에 있는 남북의 두 감리교회가  
「선교 연합회」를 해소하고 「기독교  
대한 감리회」를 창립하여 그 교리  
적 선언을 발표하고 장정규칙을 제  
정하여 독립 교회로서 발족한 것은  
한국 宣敎史에 있어서의 획기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때까  
지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의 「선교 연합회」에 속하여  
미국 감리교회 감독의 관리를 받고  
있었으며 전도, 교육, 의료, 사회

복지, 농촌 절제, 부녀 운동등교  
회 사업이 名實 共히 「선교사들의  
선교 사업」이었다. 모든 사업의  
정책 수립과 실천의 관리권한이 실  
질상 미국 감독 및 선교사들의 掌  
中에 있었다. 그러나 기독교 대한  
감리회의 창립과 함께 교회의 모  
든 사업이 「선교사들의 선교사업  
으로서의 성격」을 彰하고 「감독  
교대한 감리회」의 사업이 되었다.

이렇듯 교회의 관할권과 사업이 완  
전히 한국 감리교회에 이양되었  
다. 이와 함께 종래 모든 선교기  
관을 — 곧 학교나 병원 기타 사업  
기관의 관리권한과 운영책임 마  
지 선교사들의 손을 떠나 한국교  
회 지도자들에게로 옮겨갔다. 이에  
따라 한국에 나와 있는 선교사들도  
한국 감리교 연합회의 회원이 되어  
한국 감리교회 감독의 관할과 파송  
을 받게 되었다. 이 발전은 한국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 감리교회 宣  
敎사업의 위대한 成就라고 온 세계

에 널리 禮讚되었다. 분명히 이는  
선교사상 회기적인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업」을  
「선교사들의 사업」으로 믿어오고  
실천하여 온 일부 선교사들은 그  
생각과 행동이 이미 굳게 慣習化되  
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에  
適應하기를 심히 꺼려하기도 하였  
고 대한 감리회의 자주성에 당돌히  
도전하기도 하였었다. 이러한 태도  
를 노골적으로 오늘까지 유지할 뿐  
아니라 지난 一〇년간 더욱 심하여  
저서 극히 反動的인 政策을 실천하  
여 나가고 있는 것이 감리교회 선  
교부의 「기독교 여자 세계 봉사국」  
(Women's Division of Christian  
Service) — 통칭 「감리교여성선교부」  
일 것이다. 이 여성교부는 명목상  
그들의 선교사들이 한국 감독의 파  
송을 형식상 받게하고 일반적으로  
작성된 예산안의 인준을 中央協議  
會(선교사들과 한국 교회의 협의 기  
관)에 요청하는데 그친다. 그리고

신의 培養源이 되었으며 그 밖의 모든 文化的 활동의 發源으로서의 生命을 다하였다. 宣敎 사업은 한글운동, 사회사업, 농촌사업, 여성운동, 절제운동, 가정생활운동, 음악, 스포츠, 건축 등 모든 문화 운동들을 선구적으로 소개 영도하였고 民族의 生存과 自主를 위한 과감한 항일 투쟁에 있어 언제나 지도적인 책임을 담당하여 荆棘의 길을 헤쳐 나오면서 이 겨레에게 정신적 힘을 주어왔다. 日帝가 한국인의 對抗과 同化를 위한 最後的인 策에서 그리스도교 去勢와 迫害를 가장 앞세웠음도 이 때문이 였으리라. 한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만이 아니라 한국민 전체가 선교 사업을 높히 찬하고 선교사들을 지극한 존경으로 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銘記해야 할 사실이 있다. 그것은 비록

한국에 있어서의 선교 사업이 그 성취에 있어 찬연한 바가 있다고 하여도 그 사실 때문에 오늘 한국에 있어서의 그리스도교 선교 사업과 그 정책이 현하 한국의 역사적 現實相과 그 추향(趨向)에 비추어 검토 비판되고 새 방향을 모색할 필 요에서 면제되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다. 역사는 끊임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사회적 문화적 정황은 나날이 진행과 발전이 共產政勢의 對決이라는 生死를 내어전 긴장 밑에서 건설적 또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기 까닭에 生動하 는 한국의 급격한 현실 속에서 宣敎事業이 계속적으로 능력있는 전 도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까지의 至大한 공헌을 더욱 뜻 있게 하며 끝 내 이 민족의 혼이 되고 정신이 되며 힘이 되고 생명이가 되어 이 민족의 생명과 生活意識의 성격을 형성하 려면 그 宣敎政策 역시 끊임없는

검토와 批判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 검토와 비판에서 새로운 사업의 방향이 찾아져야만 할 것이라고 믿는다.

세계 선교 운동의 영광스러운 潮流에도 불구하고 그 政策이 한국 의 현실 및 요구에 보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경향을 좀체로 숨길 수 없음은 구히 유감으로 아나 여 길 수 없다. 물론 이런 말을 할 때 에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아 「선교 기지」(Mission Base)인 미국의 감 리교회와 북장로교회의 進進한 「宣敎政策」과 현지인 한국에 있어서 의 선교사들의 「宣敎行動」 사이에 현격한 거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선교현지인 한국에서 현 지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답습 실천 되고 있는 선교 정책과 선교 행동 중 오늘날의 검토와 비판을 통해서

을 답답한 한국에 온 초대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었서의 敎派單位의 宜敎를 止揚하고 敎派盟合의 基督敎宣敎事業을 推進하려 노력한 것은 慧眼을 가진 이들의 英斷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聯合宣敎의 崇高한 精神과 試圖가 좌절되고 마침내 敎派單位의 宣敎 사업이 강력히 추진되었으며 이것이 마침내 不必要한 경쟁을 유발하였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선교 五十年간의 敎派單位 宣敎의 옛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의 敎界의 分裂과 混亂을 助長하여 온 敎派主義根性의 分派政策에 있다고 본다. 비록 敎과 단위의 선교정책이 애당초 불행하였다고는 할찌라도 한국 敎회 지도자들과 宣敎師들의 良識과 努力으로 敎派 새의 소극적인 경쟁과 對立을 最小限으로 局限하고 相互間的 協力 親善 分與를 통한 공동 선교행동을 하여올 수 있었음은

다행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具顯이 해방 이전까지의 基督敎 公議會(기독교 연합회의 前身), 주일학교 연합회, 해방 이후의 기독교 연합회, 대한 기독교 교육 협회, 대한 기독교사회 등 세계 敎회 운동(Ecumenical movement) 기관의 조직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는 這間일 부고루하고 보수적인 지도적 宣敎師들의 支持 내지 사수를 받은 敎權至上主義者들의 정동신앙을 빙자한 편협 완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있는 最大의 敎파인 장로교파가 三派로 分裂되는 不可避한 窮地에 빠졌고 나아가서는 敎회 親睦機關인 기독교 연합회와 기독교 교육 협회의 存續 내지 機能를 위협하게끔 되었다. 물론 한국에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停滯와 마비에는 한국 敎회 지도자들의 책임도 없지 않으나 자기관의 正동신앙 守護를 陰性的으로 조종하는 일부

지도적 선교사들 위에 그 책임의 比重이 더 무겁다는 것을 좀체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우기 오늘날 한국 敎회의 연합 운동에 직접적인 장애를 주고 있는 일부 완고하고 독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의 집단이 그들 선교사들의 지도 밑에서 조직 발전하여 왔음을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믿는다. 아무리 변명을 하고 그 행동을 合理化하려 한다 하여도 宣敎師들이 그렇듯 처참한 敎界 分裂의 책임의 一端을 아니 질 수 없을 것이다. 오늘날의 人類는 가장 강력히 조직된 共產勢力의 暴虐한 攻勢 앞에서 人間性 喪失의 위협을 받고 있다. 人間이 人間이기 위하여, 그리고 人間을 제국, 社會 國家의 지배에서 자유를 향시 享有케 하기 위하여 共產主義 및 모든 形式의 人本主義 世俗主義를 克服 打破해야만 歷史的 決斷의 位置에 우리 基督敎者들은 처하여 있다. 이 목적을 달성키



그 사업계획이나 실천예산 작성 및  
 배당에 있어서의 한국 감리교회의  
 관할권을 완강히 거부한다. 그리하  
 여 여선교부는 그들이 관할하고 있  
 는 기관에 관한 정책수립과 지도  
 감독에 있어서의 한국 감리교회의  
 주권을 무시하고 여선교사들이 직  
 접 이에 당하고 있다. 그들은 그들  
 의 도움은 기관을 끝내 「선교기관」  
 으로 존속시키려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한국 교회의 요구에 따른  
 사업 계획 대신에 그들이 계획 실  
 천하는 바의 승인을 강요한다. 그  
 리하여 모든 사업 기관이 감리교회  
 기관이면서 감리교회의 관할을 거  
 부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며 참된  
 그리스도 信仰에 근거한 理解와 協  
 助를沮喪하고 있다. 이러한 前世  
 紀的인 宣敎政策은 그 규모가 아무  
 리 크다손 치더라도 한국 교회의  
 자주성과 한국 감리교인의 긍지를  
 유린하는 바 지극히 크며 무의식중  
 事大思想을 培養하여 宣敎精神에

대한 회의를 깊게 만드는 결과를  
 빚어낸다.

우리는 이 여선교부의 정책을 형  
 식과 정도는 다를망정 장로교 모든  
 선교부와 정결교회 및 카나다 연합  
 교회의 선교정책등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선교 정책 중  
 우리들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것이  
 이른바 「교파주의」(Denomination-  
 alism)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直接  
 的이고 個人的인 경험의 可能性과  
 充足性を 믿고, 인간 양심의 자유  
 를 믿는 프로테스탄트 신앙에 있어  
 그 경험과 신앙과 사명을 같이하는  
 이들이 예배와 교제 봉사와 진도를  
 목적하여 교회를 조직하고 나아가  
 教孤를 형성하는 것은 이당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더우기 사회적 문  
 화적, 정치적, 情況의 特殊性 때문  
 에 敎派가 생겨날 신앙적 필요도  
 있었고 또 歷史的 必然性도 있었을

것이다. 대개 信仰의 형식은 주어  
 진 文化 環境으로 말미암아 制的 되  
 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特定한 시대와 사회에서  
 특수한 歷史的 조건 밑에 생겨난  
 特殊形式인 「교파」를 그 特殊性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被宣敎地」에  
 그대로 옮겨 놓을 필요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우리는 교파의 分立  
 이 그 地域 社會의 精神的 分立을  
 초래하였고 이 정신적 분립이 많은  
 경우에 무엇 보다도 더 큰 손실을  
 주어왔음을 기억한다. 그러므로 기  
 독교 선교와 함께 교파를 끌어드림  
 은 대단한 過誤일 수 밖에 없다.  
 제 一八세기 말에 「런던 선교회」  
 (London Missionary Society)가  
 창립되었을 때 교파주의의 아무런  
 형식이든 이의 수출을 목적하는 것  
 이 아니요 「복되신 하나님의 복음  
 을 宣布함으로 목적을 삼는다」고 한  
 구절을 그 憲節에 써넣은 本意도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정신

생활 운동 스포츠 등 모든 사업이 현대 한국 문화의 성격과 형태를 형성함에 있어 다른 어느 집단들보다도 더 큰 寄與를 하여 온 것이 사실이요 또 이러한 문화운동이 북음전도의 가장 좋은 기회가 되어 온 것도 역시 사실이다. 그리스도교가 없는 현대 한국 문화의 濫觴을 좀체로 생각키 어려움같이 문화운동을 통하지 않았던 한국 그리스도교계의 발전 역시 생각키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교 문화운동은 한국에 있어서의 선교운동 발전의 직접적인 매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생각

이 미칠 때 우리는 초대 선교사들의 빛나는 전망과 幻 그리고 그들의 한국의 要求에 취한 선교 정책의 확립, 그 宣敎 政策 實踐을 위한 헌신과 희생에 깊은 존경과 진실된 감사를 바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오늘 한국에 있어서의 선교 정책과 사업에서 우리는 「오늘

의 한국 실정에 취한 과감한 문화운동의 움직임은 좀체로 찾아볼 길 없었다.

한국 文化의 內的 性格과 방향을 결정함에 있어 거의 決定的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言論운동, 出版 文化운동, 음악 미술 예술 운동 등에 있어 선교정책과 사업은 극히 冷淡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消極的인 現狀유지를 能事로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운동에서 遊離된 선교 정책과 선교사업이 福音이 숨겨진 당연한 결실을 거두게 하리라고 믿을 수 없다. 그 실 오늘날의 한국에 있어 敎會는 급격히 발전하며 격동하는 現實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입을 봉한 느낌이 노상 아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유감스러운 것은 오늘날의 선교사업이 四·五〇년 전에 비하여 韓國觀을 가지도 오늘날의 한국을 測定하며 오늘날의 선교정책을 세우고 선교사업을 수행하여 나아가기도 하기 까닭에 선교사업의 一面으로서의 문화사업이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그리 신중히 評價되지를 않고 있으며 때로는 時代錯誤의 典

형과 같이 看做되고 있기도 하다. 그도 그런 것이 오늘 한국에 있어 선교사업에 직접 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의 현실과 오늘날의 문화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거의 저버리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좀체로 한국의 신문물을 읽지 않으며 그 외 다한 季刊物을 통해 그때 그때의 한국의 약동하는 맥박을 打診하려고 들지도 않는 것같이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날의 한국인의 내적 도구는 언제나 발전하는 한국의 동태와 취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따라서 과감하고 성실한 선교사업을 계획 추진할 수도 없지 않겠는가. 선교사업이 언제나 빛나는 결실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례의 생명과 생활의內的 動源이 되며 이 나라의 그 문화의 精神의 大動脈이 되기 위하여——곧 한국에 있어서의 宣敎 本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 문화운동에 관한 한, 그 정책의 근본적 수정이 절대로 요청되며 宣敎師들의 精神 態勢 역시 근본적인 변혁을 거쳐야만 할 것이라고 믿는다.

(監理敎東大門敎會牧師)

위하여서라도 모든 그리스도교도들은 그 총력을 結集하여 福音宣布, 公宣敎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 있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救主로 믿는 모든 敎會들이 세계 기독교 연합의회를 一九四八年에 창립하여 이미 반세기 이상을 世界宣敎 사업에 공헌하여오던 「국제 선교 회의회」(International Christian Council)과 携手 진력하여 왔다. 이러한 회기적 인 큰 과업에 우리 한국 교회들도 參與하여 기독교 연합회와 기독교 교육 협회, 기독교 서회 등이 에큐메니시티의 大理想을 마라고 나왔었다. 共產 攻勢가 가장 긴박한 한국에 있어 민족의 단결과 결속을 위하여서도 원대한 이상과 崇高한 이념 및 대담한 실천력을 갖춘 에큐메니칼 운동의 강력한 추진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교계에 소위 獨단적 정동주의를 치켜들고 그 교회 안의 分裂을 회채 조장하고 교

회 연합 기관의 존재를 위협하여 그 機能을 약화하는 수치는러운 파괴 운동이 이제껏 활발함은 그리스도교 계뿐 아니라 민족과 인류의 이름으로 극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는 본 교회들의 忠誠한 에큐메니칼 정신과 온 인류의 역사적 요청에 關心치 않고 교회 내 분열 운동은 조종한 흔적이 보임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잘못이라고 할 밖에 없다. 그 본질상 언제나 그래야 할 터이지만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오늘날의 세계와 인류, 특히 한국의 현실이 「선교의 우주성」(Catholicity of mission)을 절대 요청하고 있지 않는가? 그실 우주성을 몰각한 선교 운동, 곧 교파의식과 獨단적 우월감 및 분열 정신에서 출발되었거나 추진되는 선교 운동은 오늘에 있어 「그리스도교적」이라고도 할 수 없고 또 우리에게 요청되는 바도 아니리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선교를 위해 헌신한 이들은, 그러므로 모름지기 모든 형식의 분열 운동에서 떠나 선교의 우주성을 파악하고 한국 교회가 지닌 기록된 사명의 수행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도다운 정신과 태도와 실천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나는 한국에 있어서의 선교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온 그리스도교 문화 사업에 대하여 한마디 말하고자 한다.

위에서 이미 논급하였음과 같이 현대 한국의 黎明期에 있어 그리스도교는 모든 문화 운동의 先驅의 공헌을 하였다. 그리고 특히 그 모든 文化 운동은 宣敎사업의 가장 자연스러운 具現의 일부였으며 또 다른 한편 宣敎의 구경 목적인 복음 전도의 한 방법이기도 하였다. 선교 정책에 기한 선교 사업의 방법으로써의 교육 의로 국어운동, 농촌 사회 여성운동 음악 절제운동 가정



<좌담회의 광경>

**司會** 고말씀니다. 그러면 감리교 선교부의 입장에서 타이스 선생께서 선교정책의 변화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요.

**타이스** 그건 대단히 힘든 문제입니다. 내가 우리 선교부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고, 또 내 의견과 달리하는 감리교 선교사도 있을 것입니다.

아까 반·리렴 박사의 말씀대로 감리교 선교사는 앞으로 한국 교회를 지도한다는 것보다 같이 일한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재 목표인데, 어느 면에서는 하나의 이상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러한 이상도 우리나라 우리 선교부의 노력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한국에 온지 二년반 밖에 안 되고 현재 감리교 선교부 아래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

밖에 모릅니다.

**리카보** 저는 남창로교 선교사인데 우리 선교부에서는 감리교나 연합장로교의 방침과 비슷한 정책



<리카보 목사>

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선교부가 종래의 지도적 입장을 떠나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파트너로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부가 이러한 과업을 실천하는데 좀 템포가 뜨다고 봅니다.

**司會** 고말씀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솔직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씀



# 戰後에 있어서의

## 宣敎事業의 方向

司會 오늘 여러분께서 기독교사상을  
지를 위하여 본 좌담회에 참석하  
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이후의 선교정책과 활  
동을 중심으로 토의코자 합니다.



<김하래 박사>

### 1. 선교 정책의 변동

司會 먼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  
은, 한국전쟁 이후의 외국 선교  
정책 혹은 宣敎理念에 어떤 변화  
가 있는지요? 이에 대하여 반·  
리립 목사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반·리립 한국전쟁 이후에는 세계  
적으로 변화가 있었고, 또한 한  
국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  
니다. 그 중 선교정책 혹은 그

이념의 변화도 있는데, 즉 선교  
사는 선교사업에 있어서 옛날과  
같이 교회를 신축하고 선구자역  
할을 하는니보다 기성교회의 선  
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  
고 동역자로서의 누실을 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 參 席 者

司會 金夏泰·本誌編輯委員

Reu. P. Van Lierop·美國聯合長老敎會宣敎師

Mrs. K. J. Foreman Jr·美國聯合長老敎宣敎師

Rev. H. T. Ricabaugh·美國南長老敎宣敎師

Mr. Jack Theis·監理敎宣敎師

Miss Peggy Billings·監理敎宣敎師

洪顯高·監理敎神學大學長

李桓信·監理敎神學大學敎授

趙善出·韓國神學大學敎授

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교부가 한국교회 목사들을 초  
청하여 공동 사업 계획을 하고  
있읍니다. 물론 중앙집행위원회  
가 있어서 수시로 일어나는 일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리카보** 이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 선교정책의  
변동이니 수정이니 하는 말은 어  
지껏 우리가 사용하였는데, 한가  
지 분명한 것은 아무리 우리의  
정책이 수정 혹은 변경이 되었다  
하더라도 선교의 목적과 동기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줄 압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선교정  
책의 변동은 이러한 우리의 근본  
적인 동기를 더 보충하고 그리스  
도의 교훈으로 좀 더 풍부하게  
만든다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  
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  
리는 한국 교회의 왕성과 지도자  
의 역량의 발달을 고려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司會** 이에 대해서 빌링스 선생께  
서 한마디 말씀해 주십시오.

**빌링스** 글세요, 지금 말씀한 바와  
마찬가지로 감리교의 선교정책이  
한국 전쟁 이후에 근본적으로 수  
정되거나 변경되었다고는 생각하  
지 않습니다.



<페기·빌링스양>

우리 감리교의 선교정책의 근  
본 정신은 한국에 진정한 그리스  
도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의 건물을 자꾸 지  
어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도 한국인의 지도력을 양성하자  
는 것이 근본 목적이지요, 감리  
교 선교부는 한국 전쟁 전이나  
후나 근본적으로 아무런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책임  
과 운명에 대한 정책은 전쟁 후  
에 갑자기 변해졌다고는 생각되  
지 않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一九三〇년부터  
는 대한 감리교는 선교부로부터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 존재하여  
있으며, 선교부는 협동단체로만  
그 존재를 유지하여 왔다고 봅니  
다. 감리교 선교부 자체는 벌써  
없어지고 대한감리교의 협동단체  
로서의 유기적인 관계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정신이  
우리의 태도나 사업에 있어서 오  
랫동안 반영되어 왔지요, 한국전  
쟁 이후에 이러한 정책에 결정적  
으로 다소 후퇴한 감이 있어요,  
그리하여 오늘날에는 선교부나  
한국교회나 전쟁전에 받던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번 되푸리  
하면서 해결해 나아가야 할 처지  
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로 한국전쟁 이후에 각 선교부 정책이 수정되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서 이러한 변경이 나타나고 있는지 포맨 부인께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포맨** 대단히 힘든 숙제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말씀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아마 선교 정책의 변화가 필연적이라고 생각되는 이유는 교회 자체가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교회의 수적인 증가와 이에 따라 지도자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곤란한 일은 종래의 선교사들은 한국 지도자들과의 교제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의 운영과 모든 지도적 역할을 넘겨받아서 일하지 않으면 아니되게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나 반

드시 선교사와 한국교회가 별개로 활동해서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합장로교에서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하나의 회합을 가지고 연합해서 하나의 사업을 추진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우리 선교사 활동의 이러한 노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司會** 고맙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현설** 한 가지 물어볼 말씀이 있는데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토의할 수 있는 어떤 정기적인 것이 아니라도 가끔 모이는 집회가 있는지요?

**반·리립** 공식적인 집회라기보다 비공식적인 집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통일 문제를 토의하는데요, 연합장로



<반·리립 목사>

교는 베아드 박사가 대표가 되어 있고, 그 밖에 남장로교 선교사 그리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가령 교회 건축 문제라든지 교회 통일문제 같은 것을 토론하곤 하지요.

**홍현설** 내가 알기에는 감리교 선교부에서도 이러한 기관이 있어서 한국의 지도자들과 의문하고 있지요 (Annual Missionary Conference) 아마 이에 대해서는 타이스 선생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라이스** 네 감리교에서는 Annual Missionary Conference라고 일컫

음전달을 위해서는 어떠한 분야라도 침투해 들어가야 할 것임니다.

**리카보** 이와 연관성을 가진 것이지만 새로운 분야 개척에 대해서는 복잡한 문제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옛날에는 선교사들이 학생운동에 힘을 썼으나, 오늘날에는 그리스도교 교육만이 아니라 학원이 곧 복음전파의 좋은 장소라는 새로운 각도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포맨** 리카포 목사의 말에 첨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선교 사업을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였는데, 그 밖에도 의료사업이나 대전에 있는 농촌사업체 같은 것에 대해서 빌링스 선생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선교사업은 어떤 타입이든 간에 위에서 말한 세 가지 카테고리에 넣어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은 청년학생들을 상대로 한 선교사업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도 장기간 선교하는 것보다 단기간으로 한국에 나와 일하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연합장로교에서는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홍현설** 단기간이란 대개 몇해를 말하는 것입니까?

**포맨**二年이나 三年 정도지요.

**빌링스** 지금 선교정책의 전체적인 면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요즘 미국에서 갖나온 선교사들은 거의 다 어떤 특수 부문을 전공하고 그 방면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럽의 사정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미국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리카보 목사가 지적했음니다만 원칙적인 동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렇게 특수화되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니다. 한 가지 곤란한 문제는 선교사를 어떻게 교체하며 또한 적적소에 배치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반·리립**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수한 기술 역량을 가진 선교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장로교에서는 무엇보다도 원숙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현지에 보내서 농촌, 공장, 학생들에 대한 복음 전파에 힘쓰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풍부한 경험자로서 한국교회의 동역자들과 그 경험한바를 같이 나누고, 후배를 양성하고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에큐메니칼의 정신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링스** 그러면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는 나이 많아서 오게 된다는 뜻입니까?

**반·리립** 아무튼 오늘날 언어능력을 대단히 중대시하고 새로



## 二、선교사업의 新分野

**司會** 과거의 선교사들은 하나의 전통으로서 가르치는 선교, 설교하는 선교 그리고 병고치는 선교에만 집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의 선교방침의 변경이라는 입장에서 이러한 세 가지 전통적인 선교분야에도 약간의 변동이 있지 않을까요? 어떤 다른 분야를 개척한다거나 또는 종래의 분야에 새로운 분야를 더 첨부한다든가... 빌링스 선생은 사회사업을 하시는 분이니 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빌링스** 구리교 선교부로서 말씀한다면 감리교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선교 외에 또 하나의 다른 선교분야를 개척하고 있다고 보아요, 그것은 교회가 자리잡고 있는 지역의 사회복리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말하는 사회복지요, 물론 이

사회복지 가운데는 아까 말씀한 병고치는 선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발전한 것 가운데 한 가지 특기할만한 일이라고 봅니다.

**司會** 그 밖의 교회에서 목사 감리사 그 밖의 교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담당한 분들이 최근에는 이러한 사회사업에 관심을 가지며 애쓰고 있습니다. 제 자신 용기를 얻는 것은 유리 지역에 있는 감리사와 여러 목사들이, 콤폴니티 발전을 위해서 무척 애쓰며 구체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는 일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오늘날 교회가 살고 있는 사회상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가령 콤폴니티 센터, 구두담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직장전도 같은 것은 대단히 진전하고도 유망한 사회사업이라고 생각해요.

**司會** 그 밖의 어떤 구체적인 새로운 선교사업 형태를 지적하여 주

었으면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도서관을 말아보는 선교사라든지..... 이에 대해서 타이슨 선생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타이슨** 여러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과 그 과정도 가지각색인데 지금 우리 감리교에서는 도서관 관리를 말은 선교사 각 중고등학교로부터 대학 그리고 신학교에서 교련을 잠은 선교사



<타이슨씨>

들, 과학과 의학을 전공하여 병원에서 일하는 선교사 또 요즘에는 진축을 담당한 선교사, 사업면을 맡은 선교사, 농민들을 지도하는 선교사, 계몽운동들을 위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

영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께서 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어떠한 행정적인 현상을 말씀하신 것인지요.

**이환신** 네 전반적인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리카보** 제 자신의 입장에서 말한다면 저는 이러한 문제에 관한 한 다른 선교부에 대한 아무런 불만이라곤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상에 대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본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선교지도자로 왔다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나 지도자의 입장에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떤 적절한 시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리더십을 장악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빌링스** 이 점에 대해서 감리교 선교부의 형편은 약간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오늘날 감리교 선교

사들은 어떤 직무 경력, 예를 든다면 감리교 선교부 재산 관리라든가 선교사 인사문제 같은 것에는 공식적인 지도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후서 감리교 선교사들의 일하는 것을 엿볼 때 저들은 현상에 대한 불만이라기보다 불안을 약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한다면 한국에

온지 오래된 선교사나 최근에 온 선교사나 모두 공통으로 느끼게 되는 것인데, 우리는 말하자면 변천하는 선교사업의 과도기에 처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미국의 청년들이 한국 감리교 선교부에서 일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선교사로서 뿐만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여기서 일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육받고 자라난 시대는 미국이 가장

분업화되고 특수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던 시대였고, 우리

는 이러한 훈련과 연구를 하고 있어서 보면 한국사람들의 신진인사들이 어떤 지도적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부드거 자기 전공 외의 다른것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오랜 꿈과 생각은 깨어지고 엉뚱한 전문의 일을 하게 되니 한국의 현실을 파악할 때까지 다소 초조와 불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반·리럽** 물론 선교사가 한국에 올 때에는 한국교회를 섬긴다는 생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는 일에 대하여 한국 사람이 지도권을 가졌든 안가졌든 간에 일을 해야 합니다. 만일 이런 생각이 없이는 선교사로서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 四, 선교사가 겪어본 곤난한 문제들

**司會** 이제 한국의 교회현실에 대해서 선교사가 만족하느냐 하지

은 환경에 잘 순응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홍현설** 미국의 대학교, 신학교 학생이 하기 방향이면 선교지역



<홍현설 목사>

을 찾아가서 현지의 선교사들을 조려하다가 본국에 돌아가 학업을 다 마친 다음 다시 선교지역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데요?

**반·리럽** 네 여름 방학에 선교지역에 와서 경험도 얻고 선교사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게 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대학생이나 신학생 뿐만 아니라 한국에 와 있던 미국군인

가운데도 그러한 분들이 많습니 다. 제대하신 다음에 다시 한국에 온다는 말입니다.

**빌링스** 젊은 선교사를 현지에 파

송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 하는 이가 많습니다. 혹시 참고가 될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미국감리교의 선교부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 단기간 선교사의 통계인데 요, 즉 세계적으로 파견된 단기간 선교사 혹은 3년기간만 하는 선교사들의 五〇퍼센트 이상이 자기 연한이 지난 다음에 도 계속 하여 정식 선교사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三、현재의 선교사태에**

**만족하는가?**

**이환신** 여러 선교사들에게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아마 이러한 질문은 너무 광범한 질문이 될른 지 모르겠음니다만, 당신들은 오늘날 선교지도자로서 현재의 상

태에 대해서 그대로 만족하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좋은 사업을 위하여 다른 무엇을 기대하 시는지요 (일동 웃음).

**司會** 누가 이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미안합니다만 이 목사님 지금 질문을 다시 한번 되 푸리하여 주실까요 (일동 웃음).  
**이환신** 그저 저는 여러분이 선교



<이환신 목사>

사로서 한국에서 일하는데 현상에 만족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는 말이지요.

**리카보** 나는 한국에 온지 一년반 밖에 되지 않아 말씀드릴 형편이 못됩니다만 나는 현재 학교에서

에 제일 감명 깊게 들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트레이·폰스씨의 말입니다. 그는 말하기를「선교

사란 결국 선교 지역에 있어서나 선교 본부에 있어서나 하나의 말 쟁구레기(Disberber)라고 한 말입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말쟁구레기는 아니겠지요, 현상 그대로 만족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상태로 끌고 나아가려면 결국 남에게 방해가 될 때가 많아서 그런 말씀을 한 것이겠지요, 그리고 그의 말 가운데 또 좋은 말이 있었는데, 주「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면 그 순간부터 그는 선교사로써 복음을 남에게 전달할 사명을 지녀야 한다……누구나 크리스찬이면 그는 선교사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현실** 김하태 박사의 질문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 한 가지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때 한국 교회의

일선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잘 맞지 않아서 곤란을 당하는 일이 없는지요?

**리카보**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감시 동안 일하는 가운데 진실히 느끼고 한 이야기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 하렵니다. 그것은 선교사들이 오히려 금전을 다루게 되며 이러한 금전을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나 하는데 대해서 세심한 신경을 쓰게 됩니다. 한국의 경제 상태가 나쁘고 또한 선교사는 자가 맡은 금전에 대단한 책임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가끔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홍현실** 요컨대 이런 재정 문제에 대해서 미국 선교사가 대단히 날카롭다는 뜻이겠지요.

**리카보** 글세요, 날카롭다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라고 단언할 수 없

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재정 문제는 가지각색이고 또한 선교부에 따라서 형편이 다르므로 순전히 날카로워진다고만 말하기 어렵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가끔 일어나서 곤란한 결과를 자아낸다는 것 뿐입니다.

**司會** 글세요, 그것은 한국전쟁 이후에 생겨진 현상이 아닐까요?  
**타이스** 이런 문제는 어디에나 있는 문제인 줄 압니다. 우리가 금전을 다루는 방법과 생각이 다른 나라 사람들의 그것과 다를 수 있지요, 미국의 큰 기업체에서도 어떤 통제력이 없는 회사에서도 이런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금리교 선교부에서 一, 二, 三년 일하고 보니깐 어떤 선교사들은 금전을 다루는 방법이 한국 사람들하고 꼭 같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잘된 방법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 현실 가운데서

않느냐는 문제가 나왔으니, 이에 관련된 것으로서 한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즉 한국 교회에 와서 일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곤란을 느끼고 있는지, 아마 이런 것을 알아두어야 우리는 이것을 제거하도록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포맨** 오늘날 한국에 와서 오래된 선교사로서 절실히 느끼는 것은 한국말을 능통하게 쓰지 못하는 점이에요, 우리 선교사업에 진정한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을 이해하는 일인데, 이러한 일은 언어가 통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포맨 여사>

한국말을 공부하기 힘들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지만, 二, 三 년은 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언어에 재능이 있는 사람의 경우이지요.

선교사 가운데는 의사, 간호부 같은 사람이 있는데 언어를 완전히 습득하기 전에 실무에 종사해야 하므로 어떤 때는 언어불통 때문에 신정질을 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까 이환신 목사의 질문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면 우리 연합장로교는 미국 선교본부, 한국 선교부 그리고 한국교회 이 세 단체가 일치하여 일하기 때문에 별로 교회 현실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볼만이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몇 해 동안에는 선교부나 한국교회측이나 힘을 집중해서 한국교회 안에서 통일된 사업을 추진시키기에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 장로교는 一九〇七年 이후부터 거의

독립되어 있어서 선교부 산하에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한 때 선교사는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선교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대단히 당황하였지요, 그리고 특수 부문을 전공한 선교사는 어려운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배운 여려가지 지식을 한국에 나와서 여려가지 조건 때문에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라이스** 선교사가 자기 환경에 만족하거나, 자기의 지도력에 대해서 자족한다면 그 때는 그러한 선교사는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일동 웃음). 왜냐하면 현지 교회가 선교사를 필요치 않을 때가 완전한 때이며, 또한 이러한 상태를 선교사들이 목표로 일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선교사로서 훈련받을 때

의 불화 그리고 무슨 회합에서도 지 정통주의를 수호한다고 하면서 형제와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요, 사실 회의에서 투표하는데 있어서도 정직한 무표를 하지 않고 거짓된 투표를 하는 것 같은 일은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타이스** 이런 일은 있어요, 어느 한국 사람이나 또 단체라도 한 자리에서 무슨 사건을 토의하면 이쪽에서 재의한데 대하여 즉각 「네」 하고 찬성하나 마음 속에서는 그다지 찬성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발표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마 습관, 체면, 면목, 때문이겠지요.

### 五、한국 문화 이해의 필요성

**司會** 그러면 지금까지 선교사의 입장에서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과 일하는데 있어서 곤란한 문제를

말했읍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적극적으로 건설적인 입장에서 한국 교회와 선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개선하는데 주나님의 나라 건설에 어떠한 점이 더 구체적으로 건설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반·리얼** 아까 제가 말한대로 오늘날 교회 분열 때문에 학생들도 신앙을 잃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점에서 다소 신학적인 견해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서로 협력하여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협동하여 사업을 계획하고 서로 애끼면 한국에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할 기회가 많을줄 압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로 통일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리카보** 이 점에 대해서 저 역시 건설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생활에 중대한 공헌을 하려면 그

리스도교 교육의 분야에서 많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요즘 신자들은 참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못 가진 것 같아요, 교회란 무엇이냐 물으면 자열히 신학적인 문제로 싸우게 되고 맙니다. 만일 교회의 참의미를 안다면 잘 융화될 수 있고 또한 교회 분열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이나 심지어 신학생과 이야기하다가 교회 문제에 직면하면 명확한 대답을 못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문제입니다. 성경이 교회의 중심인고로 이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성서에 대한 생각이 통일되지 않으면 분열을 해결할 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맨** 선교사는 누구나 처음 한국

우리에게 주어진 금전을 한국인 미국인이 공동으로 어떤 명확한 규율을 설정해 놓고 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에는 잘 될 때도 있겠고 어떤 때는 결과가 어망일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 한국 사람의 실수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리카보**

아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선교사가 한국에서 일을 시작할 때 어떤 패턴으로 배트로네이지 (Patronage)의 난제가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어떤 친구나 기관에 기부 행위를 할 때 어떤 사람과 기관에 더 호의를 가지느냐 하는 것으로 좌우되기 쉬운데, 이것은 비단 교회뿐만 아니라 정부나 교육 기관에도 가끔 생기는 문제지요, 아마 사회의 어떤 부문에서도 있을 수 있는 문제죠.

**빌링스**

이런 문제는 어떤 일정한 형식에 맞추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교회 지도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의 성격과 대단히 긴밀한 관계가 있는 문제니까요. 한국전쟁 이후에 교육받은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러한 것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기를 꺼리는데 그 이유로서 말하기를 「교회에 나가서 목사의 설교가 좀 부족하다든지 목사가 교육을 좀 덜 받았다는 사실은 별로 괜찮은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는 목사를 하나의 인격자로서 개인적으로 그를 존경할 수 없고 그를 목사로서 우러러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요, 특히 도시교회에 이런 경향이 많더군요. 선교사들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이것은

한국전쟁 때문에 신학교육이 얼마 동안 중지되었고 또한 한국전쟁이 자아낸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 때문에 목사들의 여러 가지 문제가 평신도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지도 모르지요,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을 잘 참작해야만 되리라 고 생각해요.

**반·리립**

홍박사께서 아까 질문하신 점은 선교사가 한국교회와 더불어 일하는데서 생기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안에 서 생겨지는 문제입니까?

**홍현설**

네 한국교회 교역자와 일하는 가운데 생기는 문제를 묻는 것이죠.

**반·리립**

나 자신 개인적으로로는 한국교회지도자들과 문제를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자신이 장로교 선교사로서 가끔 유감스럽게 생각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가령 장로교 안에도 분열과 지방적인 편견, 형제끼리

적 배정도 연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가끔 저의들을 초대해 주  
십시오(웃음).

### 六、선교비의 운영문제

#### 총현설

한 마디 덧붙여야겠습니다.  
다. 물론 감리교의 입장에서 하  
는 것이죠. 한국감리교 선교부에  
서는 두가지 단체에서 한국 선  
교를 위해 원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리교 선교부와 여성교  
부입니다. 그런데 한국측에서 가  
끔 들리는 불평은 즉 이 두 단체  
에서 한국의 여러 기관을 위하여  
쓰는 돈이 잘 조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여성교부는 남선교  
부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  
는 관계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업에도 많은 돈을 쓸 때가 있  
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기관을 설치하여서 이러한 부조  
화를 조정하는 일이 있어야겠다  
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지혜롭게 써야  
겠다고 하는 것이 요즘 한국교회  
측의 요청입니다.

#### 빌링스

여성교부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따  
져 보아서 여성교부가 남선교부  
보다 돈이 많다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남선교부와 여성  
교부는 다르다고 할 수 있지요.  
즉 여성교부에서는 현지 선교사  
들이 돈을 쓰는 일에 대해서 더  
자유로운 발언을 할 수 있습니  
다. 이 점이 남선교부와 다른 점  
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도 한국교회  
와 협의하여 하나의 감독 기관을  
설치하는 일도 좋은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다루는 기관을 설치  
했으나 하나의 기구로서 아무런  
기능을 발휘치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감리교 총리원이 각

방면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나  
산의 바탕 같은 일을 전체적으로  
감독하며 이러한 기관의 기능을  
살려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선  
교부는 하나의 咨問機關으로서  
총래와 같이 함께 일하지요. 재  
정배정 문제의 책임이 한국감리  
교회에 있을 날이 오리라고 믿습  
니다.

#### 타이스

빌링스씨의 말도 이유가  
있는 말이지만 사실에 있어서 감  
리교 선교부와 여성교부는 돈의  
용도가 다릅니다. 여성교부의 돈  
을 이화중고등학교에 쓸 수는 있  
으나 배재중고등학교에는 쓸 수  
없지요. 아무리 총괄적인 기관을  
설치하고 같은 돈을 다룬다고 하  
지만 여성교부의 돈은 부녀자들  
을 위한 사업이나 학교 그 밖에  
사회사업에 쓰게 되고 남선교부  
돈은 주로 교회재건을 위해 쓰게  
되거든요. 그것은 두 선교부의  
방향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어



에 와서 느끼는 것은 한국 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열성이 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성에서 복음을 크리스찬 생활로 옮겨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러한 일은 앞으로 그리스도교 교육이 해야 할 거창한 일이기도 합니다.

**빌링스** 포맨부인께서 말씀한 대로 참된 크리스찬의 생활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교육 문제로부터 윤리 문제로 더 깊음은 분야로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한국의 문화 형태와 서양 문화 형태와의 공통한 지반을 먼저 찾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선교사들은 자기들의 생활 방식을 너무나 지나치게 고집하는 것을 가끔 봅니다. 가령 금전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자기들의 방법과 다르다 해서 비그리스도교적이라고까

지 합니다. 그러면 미국식만이 그리스도교적이 된다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서 선교사나 한국교회 지도자는 참된 그리스도교의 윤리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찾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시혜** 이상에서 토의해은 관점에 의해서 한국교회측으로부터 선교사들에 대하여 무엇을 기대하며 원하는가에 대해서 화제를 돌려 봅시다.

**이한신** 무엇보다도 먼저 한국교회 지도자나 선교사가 서로 개인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친근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외국인으로서 한국적인 문화 형태를 이해하려면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만, 한국사람을 이해하려면 먼저 한국사람과 친밀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인 측에서 먼저 접

근해야 하는지 선교사 측에서 먼저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아까 홍박사가 말씀한 대로 어떤 기관을 설치해서 한국인과 선교사가 합석하여서 로 친하여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이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인이 선교사와 담화할 때는 퍼 지리가 먼 것을 느끼는데, 선교사가 먼저 한국사람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반·리업** 이목사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들과 선교사들과의 친밀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정에서 파티할 때나 누구를 초대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한국 사람을 한 두 사람을 초대합니다. 이것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고 있지요, 매우 좋은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떠한 곳이라도 찾아가서 문화

다 고 봅 니 다.

조 선 출 혹 시 여 러 분 들 이 어 면 초



< 조 선 출 목 사 >

교 파 적 인 회 합 을 가 진 것 이 있 음  
니 까 ?

빌 린 스 카 바 (KAVVA) 가 그 러 한 기  
관 이 라 고 할 수 있 지 요, 카 바 라  
는 것 은 Korea Association for  
Voluntary Agencies 라는 말 의 약  
자 인 데 추 사 회 사 업 기 관 의 연  
합 체 입 니 다. 교 회 선 교 활 동 보 다  
좀 더 광 범 위 한 사 업 을 경 영 하 는  
데 여 기 에 는 신 교, 구 교 의 선 교  
사 들 은 거 의 다 이 카 바 의 멤 버  
로 되 어 있 습 니 다. 이 카 바 는 신  
교 와 구 교 가 한 자 리 에 앞 아 서

한 국 의 교 육, 보 건, 구 호 사 업 에  
대 한 푸 로 그 램 을 짜 고 있 습 니 다.

한 국 의 선 교 역 사 에 있 어 서 이  
카 바 의 출 현 이 야 말 로 가 장 뜻 깊  
은 사 실 일 것 입 니 다. 카 바 는 현  
재 새 로 운 단 계 에 들 어 갔 다 고  
생 각 합 니 다. 이 제 부 터 는 외 국  
구 호 기 관 과 한 국 구 호 기 관 과  
서 로 연 합 하 여 서 각 방 면 의 기  
술 자 를 동 원 하 여 서 사 업 을 추 진  
시 키 는 단 계 에 이 르 렸 습 니 다.

리 카 보 장 로 교 임 장 으 서 말 씀 드 린  
다 면 장 로 교 선 교 부 회 의 가 별 췌  
몇 십 년 전 부 터 존 재 하 고 있 습 니  
다. 일 년 에 한 번 씩 호 주 선 교  
부, 가 나 다 선 교 부, 남 장 로 교 선  
교 부, 연 합 장 로 교 선 교 부 가 장 로  
회 총 회 전 에 하 루 모 여 서 선 교  
사 업 과 교 회 사 업 을 토 론 하 곤 합  
니 다.

司 會 선 교 사 업 에 대 해 서 여 러 가  
지 로 계몽 적 인 문 제 와 사 실 이 많  
았 습 니 다. 대 단 히 감 사 합 니 다.

< 刊 近 >

아 서 케 스트러 作  
李 允 熙 譯

白晝의 暗黒

(Darkness at noon)

이 古 典 的 監 獄 小 說 은 그 리 스  
도 와 反 그 리 스 도 에 對 한 새 로 운  
象 徵 을 보 이 는 人 間 魂 의 이 야 기  
다.

< 新 刊 >

도 스토예 그스끼 一作  
林 泰 甲 譯

까라마조브의 兄 弟 Ⅱ

4 6 版 380 面  
定 價 800 圓

하 나 님 을 떠 난 人 間 의 悲 慘 은 ?  
하 나 님 과 함 께 한 人 間 의 尊 嚴 은 ?

株式 會社 鍾 路 書 館

電 話 ③ 7985  
對 峙 口 座 서 울 3044

떨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화 여자대학 같은 데는 여선교부가 원칙적으로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학교이니깐 한국의 여자는 남자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반·리립** 감리교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문의한 이니 깊은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미국에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모금한 돈이면 반드시 그 사업을 위해서 써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 사업이 아니고 다른 사업을 위해서 쓰다면 우리는 미국 교회에 대해서 신용을 잃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司會** 물론 감리교에는 감리교 대로의 특수한 방침이 있으니 그것을 전제적인 선교사업의 성격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마디 의견을 말씀드리면 선교사가운데 한국어를 전 공하여 한국인의 사상 내용을 의

구에 전달하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사상」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과연 한국의 선교사 가운데 몇 사람이나 잡지 내용을 읽고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잡지는 한국교회에서 일어난 최근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무어라고 쓰고 있는지 선교사는 반드시 알아 두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부는 어떤 특정 한 사람을 선출하여 이런 방면에 주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 것은 자선교부가 한국전쟁 이후에 특히 어떤 분야에서 가장 많은 공헌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반·리립** 한국장로교회에서는 무엇보다도 학교교육 방면에 대한 발전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수실, 계명, 대전대학 등 세 대학

을 설립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바이블 클럽 등 많은 공헌을 했지요, 六만내지 八만이나 되는 가난한 아이들에게 성경을 배워 주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또 구제사업에도 고아 과부들의 원조, 파괴된 교회의 재건 등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요, 그 중 가장 큰 사업은 군복사업이겠지요. 그리고 엠퓨티 사업도 있어요.

**타이스** 감리교 측으로서 말한다면 지금 말씀과 꼭 같은 것이니까 한 마디도 더 첨부할 말은 없습니다. (일동 웃음).

**리카보** 한국전쟁 전후에 있어서 선교사업의 성격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특히 전쟁 이후에는 외국의 각 교파가 구호사업 을 목표로 물 밀드시 한국에 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구호 기관과 여러 교파의 선교사가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 확실한 한국 선교사업의 성격을 변화시켰

Retrospect and future mission work in Korea. By Kim Yang Sun.

1. Basic mission spirit in Korea.

20 years ago the first protestant missionaries came to Korea, a hermit land, in order to pioneer a new field of religion. The feeling of this voyage might be just like puritans and their fathers who were on board for the freedom of religion. The great person of Korean mission Sr. S.A. Moffet said in his birthday worship "I prayed and determined before God when I came to Korea, that I would only preach the way of Cross. I firmly determined to preach the Gospel only in God's will whether I die or live." "I have determined to preach nothing but the Gospel of the Cross of Jesus Christ as St. Paul had determined" "If I preach other things, I swore, I would be cursed." Thus he clarified the spirit of the Protestant in Korea.

There was nothing but our pure, simple puritanistic faith to save Korean people from sin and death by preaching only the way of Cross. Today this must be highly praised and widely spread. If the first missionaries had not had a faith to preach only the Gospel as St. Paul did the way of the Cross to the Greek Cultural City, and if they had been the preachers who depended on the artificial way of the partiality in knowledge to make people understand Christ by the scientific enlightening with a kind of astronomic Calendar such as 16 centuries Roman Catholic missionaries in China, the Protestant in Korea would not have been developed as to day.

Since the basic spirit of the Korean Protestant mission was so closely related to the cross of Jesus and the Blood that it broke out the ignorance of Shamanism which rooted in the heart of Korean people for thousand years, the formalism of the Confucism, and the superstition of the Buddhism. It could possibly and firmly build the Church of Christ on this land.

## 2. Basic Principles of the Korean mission.

In the mission work, the basic principles are as important as the spirit of mission. The first missionaries concerned with manipulating its principles when they set out their mission. The Lord said in a parable that preaching the Gospel was like sowing seeds on the land. It is necessary for the missionaries to know the character of the Gospel power, and ~~the~~ history of ~~the~~ the people, culture and custom in order to have a suitable method for mission. The first Korean missionaries tried to learn the neighboring Chinese missionaries in order to set up a method. Because China is closely related to Korea in race, history, culture, politics and custom. The method which succeeded in China could be effective in Korea too. At that time there was a missionary John F. Nevius in San Song, China, who published the basic principles of mission out of his own missionary experience. It was so called Nevius method. He was popular when he published a thesis in Chinese Recorder. The next year he re-edited it as a single book. Later, it was re-edited by the American Foreign Mission Headquarters to propagate it to the world. Korean Protestant missionaries had a great concern with the Nevius method and tried to listen to the opinion of all

missionaries.

In 1890, June, Dr. Nevins and his wife came to Seoul. Seven Korean missionaries including Dr. Underwood continued a detailed discussion on mission method. In regard to Mr. Underwood they had a prudent examination and prayed earnestly. Then they agreed to choose ~~some~~ some suitable terms and made them basic principles of Korean mission. Important points selected from the Nevins methods are as following:

- (1). Individual evangelism — missionaries should circuit around the country exerting on individual evangelism.
- (2). Evangelism of himself — each Christian should realize that he himself is a man of God, and teach and learn.
- (3). Self-independent evangelism — each church should choose her own leader and rule the church by himself.
- (4). Self-supporting — church members should have a job to care for their home. In the urban life, they should have a responsibility for the construction of the church and evangelists' pay.
- (5). Systematical Bible Study — they should make all church members study Bible step by step.
- (6). Development of Co-operative spirit — through the co-operative work with other groups, they should develop co-operative ~~to~~ spirit. As a critic on the Nevins method Dr. S.A. Moffet said, "we see we have received from Nevins two great principles — system of Bible study and principle of self-supporting."

(Quarto Centennial Report,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P. 10).

In March 1893, the first Korean mission meeting was organized. They published basic principles of the Protestant mission adding new methods of their experiences. They are:

- (1). The evangelism should be directed to the working class rather than nobles.
- (2). They must have a special concern with conversion of women and their training.
- (3). Since the maintenance of the primary school in the small country is useful for Christian education, they should select excellent students among Junior High School to send them as the primary school teachers.
- (4). To supply to the laymen the exactly translated Bible as soon as possible.
- (5). To train continually the evangelists in the country.
- (6). All the documents should be written in Korean.
- (7). To reduce the aides and increase the standard of living. self-supporting.
- (8). Let Korean Christians lead their friends and neighbors so as to make a big church. Missionaries should exert to train the evangelists rather than to evangelize many people.
- (9). Concentrate on medical mission, and realize that the treatment for patients on bed or sick call for a long period are a good opportunity for evangelism.

A student of Nevius method, Dr. C.A. Clark, said indicating the secret success in Korean mission, "the basic spirit of the Nevius method is self-supporting, therefore evangelism, education and medical treatment must be operated under the principle of self-supporting.... But the self-supporting principle can hardly be carried on if it does not stand under the Bible Study." These two principles of self-supporting and Bible study are like that of Dr. S.A. Moffett. But putting the Bible study above the self-supporting principle by Rev. Clark differs from Dr. Moffett's view. The mission must make God's words its foundation above anything else.

Surely, Korean Mission was handled under the self-supporting principle on the basis of God's word following its teaching. Because of this, a correct goal and a right method, it has reached to days result. This is the greatest blessing on Korean people and at the same time the greatest and noblest merit of Korean missionaries in the history of the world mission.

### 3. The Process of Korean mission and its effect.

There are two great characteristics in Korean mission not mentioning Roman Catholic. One is before missionaries came to Korea, Korean people themselves converted and invited missionaries. In 1784, Lee Sueng Hoon accompanied with Winter Solstice ambassadors went to Peiking, there he was baptized, then came back to Korea. With Lee Sul mok, a great Roman Catholic, he founded Korean Roman Catholic. He succeeded in asking Peiking Catholic Church to send us



missionaries.

about in 1873, youths in My Joo such as Lee Ung Chan; Paik Hong Soon, Suh Sang yoon went to Woo Jang, Manshuria, and were baptized by Scotland missionaries. They translated New Testament, when they came back they built for the first time the Protestant Church in My Joo and Song Chun.

About in 1881, noble officers in Korean government such as Lee Soo Jung, went to Jo Kyo, Japan, and converted to Christian. He also published Bible translated into Korean. at the same time he asked the Headquarters of the Presbyterian mission in America to send missionaries. Eventually, they received the first Korean Protestant missionaries such as Haron Allen and Underwood.

Another characteristic is its great result in such a short time. The former is fulfilled by the special preparation in the part of the Gospel receiver, the latter is fulfilled by the special method in the part of the Gospel giver. In short, Korean mission has greatly succeeded both by the wonderful preparation in Korea and by the suitable method of missionaries.

There were three preparations in our part. First, the national Character of the Korean People. Second, the political circumstance. Third, Korean letter Han Kuel. Originally, Korean people were full of religious Character, and have accepted foreign religion. Such religions as Confucism, Buddhism, and Taoism have flourished in Korea.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 Christianity which is the Way, Truth and Life will be accepted by the people in this land where people are tired with the form of the Confucism, superstition of the

Buddhism and self-denial of Taoism. Moreover, when Christianity came to Korea, it was a serious time of risk for the destiny of Korea, and as the absolute government and ~~serious~~ and villainous officials were too violent, and people were ~~deserted~~ wandering about having no way to go. They were ready to accept even a touch of hand for help. This is the first political circumstance. Later, Japanese invasion political and territorial formed a political circumstance to seek for God. People who lost nation naturally was to search for God. If Han Kuel were not the easiest and excellent character in the world, Christianity would not have spread so widely in ~~sa~~ short period. Korean mission was in good destiny from the beginning. Both missionaries and we all should realize it.

On the specially prepared ground and under the most special spirit and method of mission, Korean mission has achieved today's result fulfilling following nine steps:

- (1). Acquisition of believers and construction of the church.
- (2). Continuous Bible study and praying life.
- (3). Education for the church leaders.
- (4). Woman centered evangelism.
- (5). School education for Christian youths.
- (6). Medical evangelism
- (7). Christian book publishing.
- (8). Youth movement.
- (9). Social work.

Korean mission has also achieved today's result as a

worldly equal and independent Church by carrying on a suitable mission administration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Church. Chronological order is as following:

- (1). Missionary superintendent. 1884-1911.
- (2). Co-operation of missionary and Korean Church. 1912-1945.
- (3). Missionaries co-operation to Korean Church. 1945-1959.
- (4). Missionaries service as Korean Church leaders. 1960-

It is well known that the result of Korean mission is surprising in the world church. The statistical numbers clearly indicate the increase of the Church.

In 1926, Protestant Statistics: Church number - 3,664; members - 299,564;.. It is a wonderful number in this narrow land of less than 20,000,000 population. more surprisingly, 1956 statistics, after 30 years, of South Korea alone, Church number - 5,301; members - 1,324,258. Six times increased.

Roman Catholics increased only two times and half.

It means that the spirit and method of Catholic mission was worse than that of protestants. The people who receive the mission are same.

Today's Korean Church is known as "well gathering Church," "well praying Church," "well knowing the Bible," "well offering Church," "well evangelizing Church," "well building - the Church." This is a real phenomenon of Korean Church, and a exaggerated one. This is not only Korean Church's proud, but also glorious ~~methods~~ merits.

but also glorious merits of the former missionaries.

Korean Presbyterian mission in Tai Land in four or five years has achieved the greatest result in hundred years of mission in Tai Land. This is only because our missionaries succeeded in the former missionaries spirit and method. To sum up, Korean mission is greatly successful.

#### 4. New age and new mission.

a new age has come. Korea became independent. We must fight with the greatest enemy Communists with hand in hand with all free nations of the world. Early, as a real leader of the youths, Lee Sang Jai, asked by younger missionaries what you will do if you ~~were~~ <sup>are</sup> now missionaries, he answered "first of all, I will forget that I am an American." Now, all servants of God in the world are in the same task of fighting against Communism. Above all, Korea is the front country. Ministers and missionaries have a same responsibility to defend us against evil Communists spirit, as the United Nations forces defended our country. If Communists occupy Korea, Christianity in Korea will perish as in other Communists nations. Then not a trace of the 30 years work of mission will be left. Even though Communists do not invade us in the future, and we are able to defend us from them when attacked, we can not but humiliate to them unless we win over in the spiritual

fight. Therefore, the new aim of Korean mission must be directed to defend us from Communists and exterminate them.

missionaries, either Americans, Australians, or Canadians must have an attitude of the working people of Korea. If they have a same mind and duty, they must concern with our problems and plan the future problems with us.

This is the reason why I indicated this mission age as the age of work as a Korean Church leader. Unless it does not work, Korean missionaries will always wander around the work place and finally they will flee when danger comes just as in Korean war, ~~1950~~ June 25, 1950.

If missionaries really have a mind to work with Korean, they will sit with us and eat with us and do the necessary works to the end. Lastly, I would like to suggest items Korean Church requires.

(1). Flourishing Christian Colleges. There are two big sorts of Christian Colleges. One is the college of the complete Christian spirit, but with poor facilities. The other is the college with enough facilities, but with poor in Christian education. The former lacks in finance, and the latter in educators. We have to make it up to be a perfect school so as to make a ground to defend us from the Communists.

(2). Co-operative work. So far the co-operation has been done between missionary groups, not with Korean Churches.

Since Korean churches have been developed under the self-supporting mission policy, co-operative work is poorer than other countries though individual church is flourishing. Frankly speaking, this is the fault of missionaries and loss of Korean churches. In the future, we should develop and execute in this way.

(3). The movement of students and youths.

Korean students and youths are now in an extreme scepticism. Spiritually they are almost in vacuum. This is a good chance to fill in them with Christian thought and faith. They need a student center and spiritual leaders who can be their true leaders.

(4). Country work.

Korea is an agricultural country. 80% of its population is farmers and peasants. If they are lost, ~~they~~ the nation falls. Korea can not be straighten up unless they are saved. Now farmers are in dire need of help. So church work for the country is immediately requested. It needs an enormous economic assistance and man-power.

(5). Medical and sanitary work.

This drive has been one of the most important mission policy. But ruling method and facilities require more help. general sanitary work must be greatly extended since it represents the spirit of Christ in charity and in saving the life of man.

(6). Building up theology.

It may be wrong to say that Korean church has a faith

without theology. But, our desire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more greedy than theology. Therefore, present good condition or powerful menace easily rob us of our chastity of faith. Korean Church demands immediate building up the biblical theology. Though theology education is in the hand of Seminary, the education for systematic and firm faith is in the part of the Church. In Korea, the repletion of the seminary, and building up the biblical theology in the heart of believers remain as the great task before us. Missionaries must exert on this part hereafter.

(The director of the Christian museum).

A Review on mission Enterprise policy in Korea. By Song, Chung yik.

We can not objectively understand Korea unless we realize the contribution of Christianity through mission. Even though Christians and Church have done many faults because of their existential and social limitations, it is a clear fact that Christianity has contributed as a pioneer to every field of the culture, and has formed, developed its internal character and direction. Surely Christianity has developed an unmovable faith of nationalistic freedom with the universal vision in human relationship, and it has encouraged the spirit of democracy for the creative God from whom flows the conviction of human end.

Though we regard frankly the contribution of mission, we can not but discuss the mission work and its policy in Korea. For, the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of the former age which determined the type and character of mission until today, are quite different from that of today, and they are different in qualities unable to be agreed publicly. To proclaim ~~the~~ continually and lively the Gospel which takes mission for its indispensable element, to make the Christianity itself active in a throbbing power, to develop and strengthen constructive, positive contribution to the people and the nation, and to make mission work fruitful, we first of all have to examine and criticize the mission work for the present need and for the future, and discuss on it.

In the stream of history in which there are a subordinate moralism of Confucism and temporized Buddhism in Lee dynasty, or in the historical event in which the view of life based on a retributive thought is inevitably pursued, the fact that the



Gospel based on God's creation — atoning love and faith in active justice, makes man perceive the absolute worth of ~~the~~ individual and friendly relationship of human being as an inner experience of man, has been preached through the missionaries of Christ is truly a great delight for those who know history.

It was plain that the Gospel mission of God's salvation and power of rebirth in Christ gave a new character and form to Korean society and its general life and custom in touch with Korean society and its culture. The Gospel mission in one society and in one circumstance — especially in case of Korea could not but reveal as the vanguard cultural movement, for this proclamation of the Gospel could be done only through the cultural communication in present order. The mission has essentially a historic character, and at the same time it is in the cultural restriction. The fact "the word became flesh and dwelt among us full of grace and truth; we have held his glory, glory as of the only son from the Father" implies the historical character of the mission work and its character of the cultural restriction.

It is most justifiable that mission was translated into Korean as "mission work", and was confirmed. Seeing its process and result until today, it was an extremely great blessing for our people. It is an extremely fortunate thing that the mission in Korea began as an advancing education and medication. The institutions of education and medical treatment fulfilling their original duty, have not only showed the great effect as a strong institute of Christian Gospel, but also have become a ground of nationalistic spirit and other cultural activity. The mission work has harbingerly introduced all

Cultural movements such as Han Kul drive, social work, agricultural community work, woman movement, temperance, family life movement, music, sports, construction and so on. This is the reason why Japanese persecuted first Christianity in their last severe dictatorship to bury the soul of Korea and to assimilate it with that of Japan. Here is the reason why Korean Christian Churches and people honor missionaries.

Here is one thing to remember. Though mission work in Korea has been splended, it can not escape from criticism and examination for a new direction comparing the past mission with the present historical situation in Korea. History is preceeding endlessly, social and cultural circumstances are being developed day by day. It is developed positively and constructively under the vital tension against Communists attack. Therefore, I believe that in the living urgent Korean phenomenon, in order to advance continually and powerfully the mission and to remark for its past merits, and finally to make it praise its past contribution and make it to be the soul, spirit, power and life so as to form a character of life and living conscience of this people, the mission policy also should be the object of continuous examination and criticism, and in this examination (survey) and criticism, a direction of new work must be sought out.

It is to be extremely regretted that, inspite of the glorious new wave of world mission, its policy does not keep pace with present Korea and her need. Of course for that matter, we should realize that there is a big gap

between the sound mission policy of North Presbyterian and Methodist Church in the "mission base." America, and "mission activity in the practicing ground, Korea.

Then what are the points to be corrected through our survey and criticism in mission action of this practicing ground? We can point out a few things.

First, they clearly seem to carry on the Christian mission in Korea as missionaries' mission work. It requires explanation. It was a significant event in mission history that two Methodist Churches in Korea, North and South, dismissed "annual mission meeting and founded Christian Korean Methodist, and proclaimed a dogma and adopted regulations of the Charter, and developed to a Church of independence.

Until that time, Methodist Church in Korea belonged to the annual mission meeting of the American Methodist and was controlled by its superintendent, and the Church works such as an evangelism, education, medical treatment, social welfare, rural area temperance and woman movement were virtually mission works of the missionaries. The right to set up the work policy plan and to control the practice was in the hand of American superintendent and missionaries. Now, the right to control the church and work was completely taken over by Korean Methodist Church. Likewise, the right and responsibility for all mission institutes — school, hospital or other works are in the hands of Korean Church leaders. Missionaries in Korea became a member of Korean annual Methodist meeting and to be sent in control of the superintendent of Korean Methodist Church.

5.

This progress has been highly praised not only in Korean Church, but throughout the world as a great achievement of the American Methodist Church. Distinctly, it was an epoch-making event.

Nevertheless, some missionaries who believed and practiced mission work as missionary work hesitated to apply to a new circumstance and even challenged to the independence of Korean Methodist Church, because their ideas and behaviors are firmly customarized. They still maintain this attitude, and since ten years it became graver, they are practicing reactive policy. This is Women's Division of Christian service in Methodist mission. This woman mission formally have their missionaries receive Korean superintendent, and they merely ask the ratification of budgets to Central Committee. They stubbornly refuse Korean Methodists right to control in work planning, practicing budget, and its appropriation. They disregarded the right of Korean Methodist in policy and guardianship of their ruling institute, women missionaries themselves are doing it. They try to keep their helping institutes subordinate to "mission institute." to the last. They force on the agreement for their own plan rather than for Korean Church's need. So while all institutes are of the Methodist institute, they refuse the control of the Methodist Church, or hurt the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ased on the faith of Christ. This past centuricistic mission policy, however wide its extent may be, greatly deceives the Methodists' idea, and encourages the spirit of apple-polishing to the bigger nation and gives us a deep scepticism about the spirit of mission,

6.

Though there is a difference in form and extent, we can find a similar policy in Presbyterian mission, Holiness Church, or United ~~Presbyterian~~ Canadian ~~Church~~ Church.

It is the denominationalism that attracts our attention in Korean mission policy. It is possible to organize a Church and further form a denomination for communication, dedication and evangelism with those who have same experience, faith and hope among Protestants who believe the possibility and fullness of a direct and personal mercy of God, and the freedom of human conscience. There should be the necessity of faith and historical need. For, the form of faith is restricted by the given cultural circumstance.

But it is not necessary to move the denomination born under a special historical condition in a special age and society, to the mission field that has nothing to do with those characteristics. We remember that the decision of denomination has caused a spiritual division in the rural community, and this spiritual division has caused a great loss. Therefore, it was a great fault to draw in the denominations with Christian mission. Here is the reason why they ~~wrote~~ said "this purpose is to proclaim the blessing Gospel of God not to export any form of denomination," when London missionary society was founded at the end of 18th Century.

It was a good decision for the first Korean missionaries who learned this spirit, to try to stop this denominational unit mission, and unite Christian mission. Nevertheless, the noble spirit and attempt of the united mission was frustrated, and eventually the mission of denominational

unit was strongly carried on. It's sorry that this has finally raised an unnecessary scepticism. The problem is not of the past history of the denominational mission in 50 years of Korean mission, but of division policy of denominationalism which stimulated to days church division and disorder.

It's fortunate that though denominational mission policy was unfortunate, with the effort of Korean Church leaders and missionaries they have restricted to the least the passive competition and rival, and have done common mission through friendly relationship. The result of such an effort was the organization and activity of eccumenical movement such as Christian association before the emancipation of Korea, Sunday School association, Christian association after the emancipation of Korea, Korean Christian Education Association, Korean Christian Society. The greatest denomination in Korea, the Presbyterian was inevitably divided into three parts by the narrow, stubborn behavior of the conventional power-favorers who were supported by narrow-minded and conventional missionaries. Further, it has threatened Christian association and Education Association's existence and function. Of course, Korean Church leaders are responsible for the apathy of Eccumenical movement. But a part of missionaries are more responsible who indirectly steer the conventional faith. It's awful sorry that a part of autocratic, conventional group has been organized and developed by such missionaries. Missionaries can not but hearing the responsibility for this.

8.  
tragic division of the Church, however they excuse and rationalize their behavior.

To day human beings are threatened to lose man's character in the horror of Communists. We are now in a position of a historical determination to overcome the Communism and worldly humanism of all forms, in order to be a man and to maintain constantly the freedom Class and reign of the nation. To achieve this purpose, all Christians should concentrate their effort on proclaiming the Gospel.

In this sense, all churches which believe in Christ as the Son of God founded Christian Council in 1948, and ~~try~~ tried to work with International Christian Council which had been contributing to the world Christian mission. In this epoch-making great task, Korean Church has emerged in the hope of ecumenicity, and participated in Christian association, Education Council, and Christian Literature. Strong effort on ecumenical movement with a longrun ideal and noble, and bold execution, is requested in order to unite the people. It is awful sorry for both Christian Church and for the name of the nation and human being that in such Churches so called autocratic conservativists shamefully encouraged the division in Church, threaten the institute of the Church and weaken its function. It is an unjustifiable fault of American missionaries who accelerate the division in Church instead of meeting the necessity of the noble ecumenical spirit of the Church and human history.

Though it must be so in essence, do the world and human, especially situation of Korea not require catholicity of mission? The mission movement which disregards the

8.

universality, and carries on in denominational conscious and autocratic superiority and schism spirit, can not be "Christian," and is not necessary for us. Those who devoted ~~for~~<sup>to</sup> the mission called by God, will leave from division movement of all forms, but grasp the universality of the mission, and show the spirit, attitude and enforcement of the Christian apostle in order to carry on the noble purpose of the Korean Church.

Lastly, I am going to talk about Christian Cultural work which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in mission. as I said before the Christianity has contributed to all Cultural movements in modern enlightening age of Korea. On the one hand all cultural movements were a natural display of the mission work, on the other hand they were methods of evangelism — ~~a~~ ~~is~~ a main purpose. It is fact that all cultural works — education, medical treatment, rural area woman movement, music, temperance, family life movement, sports have dedicated to the transforming into modern cultural character and form more than any other groups. This cultural movement has been the best opportunity for evangelism. as we can not imagin modern Korean culture without Christianity, so ~~to~~ can we not think Christian development without cultural movement. In this sense, Christian cultural movement was a direct mediator for developing mission movement. Here we can not but deeply honor and thank the devotion and sacrifices of the first missionaries bright hope, their policy for the need of Korea, and their enforcement of the mission. But, today we can not find any strong



Penal Discussion.

President (Kim Ha Jae):

Thank you for your participation in the discussion. Today we will discuss on the mission policy and activity since Korean war.

1. Change of mission policy.

President:

First of all, is there any change in foreign mission policy or mission ideal since Korean war? Sr. van would you talk about it please?

President:

Thank you. Mr. Theis will give us a few words on the change of mission policy in terms of a methodist missionary.

President:

Thank you. I will ask frankly one more thing. As you have told us, each mission policy is being changed since Korean war. Then Mrs. Foreman, please speak to us in what type this change appears.

President:

now, everyone of you speaks to us please.

Harold Hong:

I would like to ask one thing. Is there any regular meeting to discuss with Korean Church leaders?

Harold Hong:

as far as I know, our methodist church with such institute as Annual Missionary Conference, discuss

Korean Church leaders. Mr. Theis knows about it better than I do.

## 2. New field of the mission work.

Presider:

I think that past missionaries are traditionally concentrated on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 mission. Is not there a little change on these three methods in terms of the change in the past mission method? Social worker, Mr. Billings will tell us which field we should pioneer or add something more to the old field.

Presider:

I wish you could point out some other specific new type of the mission work. For instance, missionary who is in charge of the library.... Mr. Theis will speak to us of it.

Harold Hong:

I am told that many American Colleges or Seminary students go to mission field to help, when they came back they volunteered for the missionary after graduation.

## 3. Are you content with the present mission?

Lee whan Shin:

I would like to ask you, missionaries. Perhaps a question may be too general. Are you as the leader the mission satisfied with present condition, or do you something good for a new work? (laughter) #

Presider:

Who will answer for this? Rev. Lee, would you reply your question please? (laughter).

Lee Whan Shin:

I only ask you if you as missionaries are content with present circumstance.

Lee Whan Shin:

yes, I mean general circumstance.

4. Difficult problems in missionaries' experience.

Presider:

I would like to know one thing in connection with whether missionaries are content with Korean Church today. That is whether you feel any difficult ~~or~~ and what kind of difficulty specifically you feel for your work in Korea. We should know it so that we may be able to eradicate it!

Harold Hong:

This is related to Dr. Kim Ha Tae's question. I will ask frankly. Haven't you any trouble because you are not agreeable with the frontline workers of Korean Church?

Harold Hong:

In short, American missionaries are very sharp on the financial affairs.

Presider:

Well, is that not a problem occurred since Ko war?

Harold Hong:

yes, I have asked you the problems which occur while you work with Korean Church leaders.

5. The necessity of understanding Korean Culture.

Presider :

We have talked about the problems which missionaries feel working with Korean Church leaders. Now, I hope you will tell us positively and constructively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Church and missionary. Please tell us what point specifically can be constructive.

Presider :

Let us turn our subject to what Korea expects from the missionaries.

Lee Whan Shin :

First of all, Korean Church leaders and missionaries must be friendly either privately or culturally. Of course it is difficult for foreigners to understand Korean type of Culture. But to understand Korean, it is one of the methods to be friendly with Korean people. I do not know whether Korean should first be close to missionaries or vice versa.

As Dr. Hong said before, it is a good idea to set up an institute to provide for an opportunity to talk to Korean and missionaries sitting together. When Koreans talk with missionaries, they feel far away from the missionaries. Is there ~~any~~ method for missionaries to be near to Korean? It is Korean Churches request that pecuniary assistance should be used more effectively and wisely.

Presider:

Since methodist mission has its own special method we can not generalize it. I am of the opinion that some missionaries had better to major in Korean language and transmit the content of Korean thought to abroad. For instance, I doubt how many missionaries can read<sup>a</sup> magazine the Christian Thought. This magazine handles various recent problems. Missionaries must know what we write for these problems.

So missionaries should choose a special man to concentrate on this field.

Lastly, do you think to what field especially each mission has greatly contributed since Korean war.

Chough Sun Chul:

Have you had any super-denominational meeting

Presider:

We have had various enlightening problems and things for the mission work.

Thank you very much.

